

#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희망이 하나님의 마음

## 오직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하고 행동해야

승리제단 식구들은 보통 복이 있는 게 아닌 고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 볼 때에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모진 고생도 안하고 모진 연단도 안 받고 이런 복을 받으니 참으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단상에서 예배를 보면 여러분들의 죄가 그냥 씻어지고 마귀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죽을 때에 남새를 풍기고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에서 서면 꼬랑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 한 번이라도 상을 쟁그러본 일이 있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대화하죠? 그래서 옛날에 영모님이 “참으로 너 불쌍하다, 참으로 너 애처롭다.” 하고 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죠? 왜 그나마 하면 당신도 죄를 담당해왔던 고로 죄 담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상에 이렇게 서 있으면 온몸이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찌르는 아픔이 와도 그 아픈 것을 느끼지 않는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따갑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들만 영생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혜가 가져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저야 돼, 안 저야 돼? 죄를 안 저야 되죠?

남자는 남자라고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라고 의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 하고 의식을 하면 그게 바로 죽을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밀실에서 이 사람은 내가 남자다 하는 의식을 하지 않았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고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겸손하신 분이요, 희생의 신인 고로 하나님 성품대로 세상을 살았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해서 으스스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더러 “이긴자가 됐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우쭐하지 않았어

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지, 내가 이긴자가 됐나!’ 내가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자 되셨나!’ 하니까 “또 이겼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또 이기셨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승승장구로 이겨나가다가 나중에 “완성자가 됐다.” 하셔서 ‘완성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완성자가 되셨나!’ 하고 또 며칠 있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시길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지, 이 조희성이기 하나님이 된 게 아니잖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니 계속해서 승승장구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니를 짓기에는 싸움, 나를 죽이는 싸움, 내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지, 인간의 생각을 둘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서운 초능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 구세주가 이 세상의 공기를 맑히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한동안 없어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딴 데로 날아갔다 오는 초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 대장하고 최후의 결전이 있었는데, 그 최후의 결전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세주가 이긴으로써 온 우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권좌에 앉게 된 고로 이 사람은 마음대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뺀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서울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만 이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고로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자기네들이 돈을 번다는 것을 알고 협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공기를 맑히는 사업도 하지!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물을 맑히는 일을 하지! 하는 데 이긴 진짜 세계 돈을 끌어 모으는 사업인 것입니다. 서울의 공기를 맑히고 동경의 공기를 맑히고 뉴욕의 공기를 맑히



구세주 조희성님

고 워싱턴의 공기를 맑힌다면 세계 여기, 저기에서 돈을 보따리로 싸 가지고 와서 맑혀 달라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환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해도 되겠죠?

##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얼굴도 변해

지금까지 예배 보러 갈 때에 “예배 보러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제단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맞아요,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제단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려간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런고로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서야 하늘나라 가고, 내가 영생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건 지극히 과학적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나마 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피의 작용인 고로 혈액형이 A형이면 마음이 꼼꼼하고 안전하게 움직이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것

니다.

그래서 미국의 록펠러 대학교 교수들이 요즘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가지고 그 변한 피가 몸이 되고 살이 되고 얼굴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깡쟁이 마음을 먹으면 얼굴이 깡쟁이 얼굴로 변하고, 흥측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흥측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흥측한 마음이 흥측한 얼굴을 만드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되는 고로 꼭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꼭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가 힘들죠? 주체의식이 마귀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인고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게 되면 이긴자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이긴자의 몸으로 변해서 초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 없앤다고 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없앨까?’ 하고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없어질 것을 100% 믿고 이 사람의 분신이 날아가서 공산주의자들 속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영을 전부 죽여 버렸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마음이 있으면 그런 초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몸이 수억만 가지 몸으로 쪼개져서 분신으로 날아다니는 고로 공산주의자를 전부 민주주의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에 김대중이 찍으라고 옥중에서 그랬죠? 이 사람은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투표하기 전날인 12월 17일에 용의 그림과 ‘김대중 대통령 축하합니다.’ 하는 수를 놓아서 김대중 대통령 집에 갖다주라고 옥중에서 지시했던 것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걸 알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 돼,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똑같이 되면 마음먹은 대로 될까, 안 될까? 마음먹은 대로 되겠죠?

그러나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고로 이 사람이 말을 뱌으면 그 말에 대해

서 100%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제단은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온 우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천지개벽을 할 자라고 격암유록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되면서 죽음의 세상이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고로 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속성의 마음인 고로 영원무궁토록 살겠다는 확신에 찬 마음과 영생의 희망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일시적으로는 가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기만 가지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타산 속에서 살면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 되지만 항상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1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 말씀 묵상으로 구세주의 실체를 알아가기

하나님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의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 바로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은 영과 육이 함께 영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속에 있는 마귀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버리고 승리한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 의식에 좌정했을 때, 바로 피가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는 고로 바로 완전히 승리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자만이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승리자가 아니면 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이겨야, 자신 속에 있는 주체영이 되는 나를 이겨야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이루어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생명과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의 영인 생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 구세주가 생명과입니다. 승리자 구세주가 생명과인지도 모르고 초초로 바라보고 했는데 초초로 바라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인간으로서 있다가 인간으로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죽으면 지옥이예요. (2002\_08\_14 말씀)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 (8) 금수강산 한반도에 거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

## (8) 금수강산 한반도에 거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



브올산 꼭대기에서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지난호에 이어서)

예언자 발람은 세 번째로 오른 산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곱 제단을 쌓고 일곱 마리의 양과 일곱 마리의 숫양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발람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짐승을 쓰지 않고 그

대신 그의 낫을 광야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성막의 북편에 배치된 단지파의 진영 위로 빛을 발하는 구름연기가 가득 임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 발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짐승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낫을 광야로 향하여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한 발람은 혜안을 얻고 곧바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앞드러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람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단지파가 거하는 금수강산은 굽이 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 가운데 자라는 백향목 같도다.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다.

단의 임금은 아각보다 높으니 단군의 나라가 날리 위세를 떨치리도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민족에서 천하장사 삼손이 나오듯이 그의 후손에서 무적정수 이긴자가 나오리라.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씹으며 화살로 쏘아 켜놓으리도다. 그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로다. 그가 웅크릴 때에는 사자와 같거늘 누가 감히 건드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도다. 한 별이 아람에게서 나오니 그의 이름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절정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

민수기 24장 5절: 아람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6절: 그 벌여짐이 골짜기 같고 강 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7절: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났고 그 씨는 많은 물 가운데 있으리도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도다

모압 왕 발람은 발람에게 크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 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셨던 그 곳으로 빨리 가 버리시오. 나는 당신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심중으로 굳혔기에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까지 하였던 것이요. 그러나 보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언자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람 임금님께



브올산에서 발람과 발락

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선악 간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리다. 나는 다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고 발람도 자신이 갈 곳으로 갔습니다.\* 안철라